

사회적 범주과정의 심리적 세분화: 내집단 속의 우리와 우리편

박 정 열[†]
중앙대학교

허 태 균
한국의국어대학교

최 상 진
중앙대학교

본 연구는 내집단/외집단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용어인 '우리'와 '남', '우리편'과 '남의편'을 이용하여, 대인관계에서 각 개념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들을 알아봄으로서 각 개념의 구조적 특징을 조사하였다. 특히, 내집단과 외집단 내에 질적인 차이를 가지는 하위집단의 존재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리성'의 한국문화적 고유성을 통해 문화의 토착심리학적 접근의 가치를 확인하였다.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류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반응들이 동거성에 관한 표현이었고, 동거성만 있으면 '우리'가 형성되는데 충분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반면에, '우리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에서는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는 측면(즉, 잠재적 실의성이 있느냐 여부)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그러한 잠재적 실의성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편'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요인분석에서 아껴줌과 신뢰성이 '우리'의 형성에서는 서로 독립적인 요인으로 분류되었지만, '우리편'의 형성에서는 아껴주는 마음과 신뢰성이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사회심리학에서 내집단/외집단 분류 이상의 집단의 질적 분류의 가능성과 사회적 범주화(social categorization) 연구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 범주화, 내외집단, 우리성, 우리/남/우리편/남의편, 필요조건/충분조건

†교신지자 : 박 정 열, E-mail : lovepassion@korea.com

‘우리’는 자기와 타인(들)이 공통성이나 관계유사성의 인식을 통해 상호동질감을 경험함으로써 형성되는 사회인지적 집단 정체로서, 가족성-인간관계 중심적인 개념으로 개인의 정체성이 집단의 정체로 전환되어 자기 정체를 집단과의 관계에서 찾는 자기-함몰적 ‘우리’라고 제안되었다(박수현, 최상진, 1990).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표상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인에게 있어 ‘우리’는 한국가족에서 나타나는 자타미분화(自他未分化)의 심리적 연대감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대된 가족의식’(Chio & Choi, 1990), ‘가족성-인간관계 중심적 우리’(최상진, 1993)로 특성화된다.

그런데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우리’로 인식되는 사람과 ‘우리가 아닌 남’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대하는 양식은 극명하게 구분된다(최상진, 1997a, 1997b). 한국인들은 ‘우리’로 인식되는 사람에게는 정(情)과 정성을 쏟고,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며 허물없이 행동하지만, ‘우리가 아닌 남’으로 인식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친절하고 경계하며 적대적이다. 또한 ‘우리’로 인식되는 사람과는 집단주의 성향을 보이지만, ‘우리가 아닌 남’으로 인식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 보인다. 한국인에게 있어 이러한 ‘우리를 대하는 마음들’을 작동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단서들은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같은 연고성이며, 이러한 연고단서들이 확인될 때는 생면부지(生面不知)의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를 대하는 마음들’이 즉각적으로 작동되고, 따라서 ‘우리성 인간관계’의 유형을 나타내 보인다. 예컨대, 이제까지 잘 모르고 지내던 상대가 같은 고향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동안 상대를 남으로 대하던 마음들과 행동양식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마음들과 행동양식으로 전환된다. 즉 무관심하고 불친절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와 행동양식을 나타내 보인다(최상진, 1997a, 2000).

이처럼 ‘우리’라고 인식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우리가 아닌 남’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이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한국인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양에서는 개인을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하나의 독특한 완성체’로 본다(Markus & Kitayama, 1991).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개인은 부분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본래의 자기(self)는 그대로 유지한다. 즉 서양의 인간은 원자화된 개별자로서의 개인이다(최상진, 1997a). 그러나 한국 문화권에서 개인은 ‘우리’라고 하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부분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최봉영, 1994). 따라서 자신이 갖는 특성은 집단 속에서 그가 맡는 역할과 기능에 의해 규정되어지며, 이것이 자신의 자아구성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Choi & Choi, 1990).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목적은 우리성 집단을 구성하고, 확인하고, 유지하는 일이다(최상진, 1997a). 그것은 한국인은 자신과 공동운명에 있는 또 다른 부분자(partial individual)를 우리관계 속에 포함시킬 때, ‘자기정체의 불충만성’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에게에는 부단히 다른 부분자들을 우리 속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우리 속에 포함된 부분자들간의 우리성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곧 인간관계의 제일차적 기본 축이 된다(최상진, 1997b).

그러나 일단 우리성 관계가 형성되면 그 속에 있는 부분자들 간에는 서로를 아껴주고 상호의존하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한다. 또한 한국인에게 우리와 우리성이

형성된다는 것은 우리 속의 사람들이 동질적인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뜻하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성 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타인은 등한시되거나 배척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국인에게 타인(the other person)의 의미는 ‘나’나 ‘우리’가 아닌 제 3자(third person)를 뜻한다기보다는 우리 속에 포함되지 않는,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은 거리가 먼 사람, 비호의적 관계에 있는 사람, 이질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최상진, 1997a).

따라서 한국인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의 기본축은 개인이 아닌 ‘우리성 집단’이다. 한국인의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개인은 독립적이거나 타인과의 하나됨 형성을 지향한 ‘관계성 개인’이며,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우리성 관계의 틀 속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의 우리성 관계는 배타적인 우리성 관계, 배타적인 우리성 집단이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은 ‘우리’와 ‘우리가 아닌 남’을 대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마음들(mental set)을 통해 상대를 어떤 관계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대비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앞에서 논의된 ‘우리’와 ‘남’에 대한 개념은 기실 1970년대와 80년대를 정점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서구 사회심리학에서 내집단/외집단 편파(ingroup/outgroup bias),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 집단간 차별(discrimination), 편견(prejudice) 등의 이름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 왔다.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의 구분은 사회심리학적 현상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개념이었다. 예를 들어, 대인간 관계 또는 집단간 관계에서 내집단 편애 또는 편파(ingroup bias 또는 ingroup favoritism), 집단간 차별(discrimination), 편견(prejudice)등을 설명하고 개인주의-집단주의와 같

은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데 내집단의 개념은 필수적인 전제였다(Tajfel & Turner, 1986; Triandis, 1988; Wilder, 1986 등).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은 사회적 내집단/외집단 분류는 내집단 정보에 더 민감하게 만들고(Wilder & Shapiro, 1984), 집단간의 이질성을 과장되게 지각하고 집단내 유사성을 축소 지각하게 하며(Wilder, 1984), 외집단내의 유사성을 과장되어 지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하였다(Park & Judd, 1990). 더 나아가, 사회정체성이론(Tajfel, 1978)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있고, 자아정체감의 부분인 사회정체감은 자신이 속해 있는 내집단과 다른 외집단을 비교하여 더 우월한 것을 지각하면서 긍정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내집단을 더 긍정적인 성격으로 묘사하였고, 내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정보를 더 잘 기억하였고 외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정보를 더 잘 기억하였다(Howard & Rothbart, 1980). 또한 실제로 외집단보다 내집단에게 긍정적인 보상을 더 제공하였다(Billing & Tajfel, 1973; Tajfel & Turner, 1986).

내집단/외집단의 분류는 문화간 비교에서도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기존의 사회 또는 비교문화심리학에서 대표적으로 제안되어온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Hofstede, 1980;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0 등)로 나누는 측면에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비교되었다. Triandis(1988)는 일본, 중국과 더불어 한국이 대표하는 집단주의를 자기자신의 관점, 요구와 목표보다 내집단(ingroup)의 그것들을 중요시하고, 개인적 즐거움보다 내집단에 의해 주어진 의무와 사회적 역할을 따르며, 내집단과 공유하는 규범과 신념을 유지하고, 내집단에 협조하고, 내집단에 강한 심리적 애착을 가지는 문화적 경향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문화적인 특성이 인간

의 여러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왔다. 예를 들어, Markus와 Kitayama(1991)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아(self)의 개념이 독립적이기보다는 기본적인 관계성을 중시하는 상호의존적으로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 관련되어서 자아를 파악하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는 내집단/외집단 분류의 심리적, 행동적 영향에도 반영이 되었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사회정체감이 더 중요하고, 그러므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신을 묘사할 때도 많은 집단적 정보를 이용한다(Cousins, 1989). 더 나아가, 보상 또는 자원을 분배할 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내집단에 대해서는 균등이나 필요의 원리를 적용하려하지만 외집단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리를 적용하려는 이중성을 보인다(장성수, 1984; Leung & bond, 1984).

그러나 이런 기존의 내집단/외집단의 개념은 몇 가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이들 연구들은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내집단 편애, 집단간 차별, 편견 등이 야기되는 과정과 기제를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최소 집단상황(minimal group situ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즉, 집단구성원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없는 집단을 구성하였다는 것이다(Billig & Tajfel, 1973; Brown, Tajfel, & Turner, 1980; Locksley, Ortiz, & Hepburn, 1980; Tajfel, 1970; Tajfel, Billig, Bundy, & Flament, 1971; Turner, 1983). 따라서 이러한 최소집단을 통한 실험 상황은 비록 원치 않는 외생변수의 간섭은 배제할 수 있을지 모르나, 맥락이 배제됨으로써 실제로 집단에 대한 감정과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그것의 '내용'을 밝히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하고 외적 타당도를 잃을 수 있다.

둘째, 내집단과 외집단이 실제로 어떤 집단인

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내집단은 본인이 속한 집단으로 외집단은 본인이 속하지 않은 집단으로 사용되어 왔고, 이는 객관적인 사회적 소속만의 영향을 실험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분일 뿐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되는 많은 집단들이 서로 다양한 측면에서 상이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연구는 집단의 몇 가지 속성들의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지만, 이런 연구들은 거의 모두 집단 속성의 양적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장성수, 1988). 한편 국내에서는 차재호와 박재현(1991)이 '우리'라는 말이 사용되는 언어 맥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한국적 의미에 관하여 연구한 바 있으며, 최상진 등(박수현, 최상진, 1990; 최상진, 1993; Choi & Choi, 1990)이 '우리'에 대한 개념화와 더불어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우리'가 갖는 의미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에서도 상대적으로 내집단에 대한 세분화와 외집단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한국인에게 있어 '우리'와 '남'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단순히 이제까지는 '우리'와 '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지만 기실은 그러한 '우리', '남'이라 할지라도 다 같은 '우리'나 '남'이 아니라 그 속에는 관계의 깊음과 얕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다양한 형태의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 민감하며 따라서 대인관계의 층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사회적 범주화에 관한 연구들은 내집단 또는 외집단이 실제 어떠한 집단인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단지 '본인이 속한 집단'으로서의 내집단은

그 종류나 개인적인 경험에 상관없이 같은 속성을 전제로 하여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차적인 목적은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다양한 층을 탐색하고 확인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와 ‘남’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우리편’과 ‘남의편’이라는 새로운 집단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와 ‘우리편’ 혹은 ‘남’과 ‘남의편’은 어떠한 집단을 의미하며, 이들 집단들은 같은 집단을 의미하는지, 만약 이들이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면 그 차이는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우리’, ‘남’, ‘우리편’, ‘남의편’이 되는 이유(또는 조건)인 개인적(또는 집단적) 특성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조사하고 그 자료들을 범주화하여 비교함으로써 각 집단의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내집단과 외집단 내 하위집단의 존재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각 개념이 형성되는 이유로 수집된 특성들을 근거로 구조화된 설문을 만들어서, 그것들의 요인적 구조와 필요/충분 조건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연구 1

연구 1은 한국인에게 있어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두 쌍의 개념인 ‘우리’와 ‘남’, ‘우리편’과 ‘남의편’이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와 ‘남’ 혹은 ‘우리편’과 ‘남의편’은 어떤 사람들이며, 왜 그들을 ‘우리’, ‘남’, ‘우리편’, ‘남의편’이라고 생각하며, 그들과는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방 법

조사대상자

중앙대학교, 고려대학교, 세명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총 205명의 1, 2, 3학년 학부학생들이 수강과제의 일부분으로 참가하였다. 전체 실험참가자 중 94명이 남자였고 104명이 여자였으며 7명은 성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사도구

질문지는 ‘우리’와 ‘남’에 대하여 묻는 질문지와 ‘우리편’과 ‘남의편’을 묻는 질문지 두 종류로 제작되어, 서로 다른 조사대상자에게 실시되었다. ‘우리-남’에 대하여 묻는 질문지에 총 95명의 조사대상자가 참여하였으며, ‘우리편-남의편’에 대하여 묻는 질문지에 총 110명의 조사대상자가 참여하였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질문지의 구성과 질문문항의 내용은 ‘우리-남’에 대하여 묻는 것과 ‘우리편-남의편’에 대하여 묻는 것은 동일한 것이었다.

우선 질문을 하기에 앞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 중 ‘우리’, ‘남’ 혹은 ‘우리편’, ‘남의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선정하여 머릿속에 대상참조인물로 설정하고, 질문의 내용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질문은 왜 그들을 ‘우리’, ‘남’, 혹은 ‘우리편’, ‘남의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우리(남, 우리편, 남의편)’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남(우리, 남의편, 우리편)’이라고 느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 등에 대하여 각각의 문항에 대해 최대한 4개의 응답을 할 수 있게 하였다¹⁾.

1) 본 논문은 연구 1과 연구 2로 이루어진 관계로 연구 1의 모든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지면상의 문제가 있

자료의 분석

각 질문 항목에 대한 응답들은 ‘의미나 내용’ 면에서 유사한 응답 내용들을 소다발로 묶은 후 다시 의미 및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하위 다발을 중다발로 묶고, 다시 똑같은 과정을 거쳐 대다발로 묶어나가는 점진적 확대다발화를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대학원생 2명과 본 연구자들 중 1인이 내용분석 작업에 참여하였다. 작업의 방식은 3인이 독립적으로 실시한 내용분석을 상호 비교하여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협의를 통해 ‘내용에 따른’ 다발화를 조정하였다. 다음 단계는 심리적 측면에서 동질성을 갖는 내용을 묶는 과정으로, 여기서는 유사한 내용으로 보이는 응답도 심리적 성격 면에서 검토하여 상이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다발을 해체·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차원의 응답범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3명의 협의를 통해 범주화를 확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하위 범주에 따른 반응집계를 통합하여 상위 범주별 반응집계를 산출하였다. 1차 분류 과정에서의 연구자간에 일치도는 ‘우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84(259/308), ‘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82(211/257), ‘우리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85(290/340), 그리고 ‘남의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82(214/261)이었다. 아울러 연구 1은 탐색적 기초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차이검증과 같은 통계분석은 사용하지 않았다.

결 과

결과는 ‘우리’와 ‘남’, 그리고 ‘우리편’과 ‘남의

다고 판단되어, 연구 1의 결과 제시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문항에 한하여 국한하기로 하였다.

편’을 각각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표 1과 표 2는 응답자가 머릿속에 떠올린 사람들 중에서 ‘우리’ 혹은 ‘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왜 그들을 ‘우리’ 혹은 ‘남’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리한 결과이다. 결과의 제시는 표 1의 경우는 빈도가 높은 순서로 제시하였으며, 표 2는 표 1의 응답내용과 비교하기 위하여 표 1과 동일한 순서로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라고 생각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항상 곁에 있고 같이 활동하며, 자주 만나고 연락하며, 함께 사는 것과 같은 ‘동거역사성(함께, 같이)’이 전체 308 응답 중 55개(17.9%)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신과 가깝고 친하며,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적 친밀성’이 15.6%를 차지하였다. 비슷한 생각과 성격의 공유, 마음이 통합과 같은 ‘유사성’이 세 번째로 높은 11.4%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상호 이해’, ‘아껴주고 도와줌’, ‘격의 없음’, 그리고 ‘신뢰’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남’이라고 생각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친하지 않으며, 좋은 감정을 가지지 못하다고 하는 ‘사적 친밀성 부족’이 전체 23.0%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동거역사성(함께, 같이) 부족’, ‘상호 이해 부족’, ‘아껴주고 도와주는 마음의 부족’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과 표 2에서 제시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선 ‘우리’라고 생각되는 이유와 ‘남’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중요도 순서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인 내용 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우리’와 ‘남’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 기준은 ‘우리’와 ‘남’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되는 이유로 ‘유사성’은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지

표 1. '우리'라고 생각하는 이유

응답내용	빈도(비율)
동거역사성(함께, 같이)	55(17.9)
항상 곁에 있다/같이 활동	23
자주 만나고 연락	8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8
동거	5
함께, 같이 기타	11
사적 친밀성	48(15.6)
친하니까	24
좋아하니까/사랑하니까	24
유사성	35(11.4)
비슷한 생각의 공유	24
마음이 통합	7
비슷한 성격	4
상호 이해	25(8.1)
서로를 잘 안다	13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12
아껴주고 도와줌	21(6.8)
아껴주고 도와줌	16
의지할 수 있다	5
격의 없음	20(6.5)
편하니까	20
신뢰	15(4.9)
비밀,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사람	10
믿음이 가는 사람	5
기타	89(28.9)
가족이니까	18
친구니까	8
같은 집단에 소속	9
기타	54
총 계	308(100)

표 2. '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응답내용	빈도(비율)
동거역사성(함께, 같이) 부족	41(16.0)
대화가 없다	18
만남, 연락이 거의 없다	13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	6
함께하는 활동이 없다	4
사적 친밀성 부족	59(23.0)
서로 친하지 않다	26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지 못함	19
나와 무관한 사람	14
유사성/공통점 부재	14(5.4)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11
마음이 통하지 않음	3
상호 이해 부족	35(13.6)
서로를 잘 모름	30
나를 이해하지 못함	5
아껴주고 도와주는 마음의 부족	30(11.7)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다	17
형식적/계산적인 관계	13
거리감	16(6.2)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16
신뢰 부족	6(2.3)
믿음 부재	6
기타	56(21.8)
가족이 아니다	6
서로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	5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보장 못함	4
기타	41
총 계	257(100)

만, '남'이 되는 이유에서는 여섯 번째로 그 중요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유사성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지 만, 유사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남'이 되는 결정

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혹은 ‘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총수를 보면, ‘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보다 ‘우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우리-남’에 대하여 묻는 질문지에 총 95명의 조사대상자에 참여하였다고 한 바, 이는 최대한 4개의 응답을 할 수 있게 만든 본 문항에 대하여 ‘우리’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약 3.2개, ‘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약 2.7개의 응답을 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남’에 대한 표상보다는 ‘우리’에 대한 표상이 더 풍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과 표 4는 ‘우리편’ 혹은 ‘남의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유를 정리한 결과이다. 우선 ‘우리편’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나를 아껴주는 ‘아껴주고 도와줌’이 전체 340 응답 중 67개(19.7%)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동거역사성’과 ‘사적 친밀성’이 각각 13.5%로 동일하게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유사성’, ‘신뢰’, ‘상호 이해’, 그리고 ‘격의 없음’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남의편’이라고 생각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껴주고 도와주는 마음의 부족’, ‘사적 친밀성 부족’, ‘유사성/공통점 부족’, ‘거리감’, ‘동거역사성 부족’, ‘신뢰 부족’, 그리고 ‘상호 이해 부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과 표 4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표 1과 2의 결과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편’이라고 생각되는 이유와 ‘남의편’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중요도 순서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 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사람들이 ‘우리편’과 ‘남의편’을 나누는데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

사하며, 그러나 그 기준은 ‘우리편’과 ‘남의편’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요인은 ‘동거역사성’이다. ‘우리편’이 되는 이유로 ‘동거역사성’은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남의편’으로 생각되는 이유에서는 다섯 번째로 그 중요도가 현격하게 줄어든다. 이는 ‘우리편’이 되기 위해서는 ‘동거역사성’이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동거역사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남의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의 대상을 바꾸어, 표 1과 표 3, 그리고 표 2와 표 4를 각각 비교해 보면, ‘우리’와 ‘우리편’ 그리고 ‘남’과 ‘남의편’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결과를 제공해 준다. 우선 ‘우리’와 ‘우리편’을 비교해 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혹은 ‘우리편’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 중요도 순서에서는 많은 차이가 난다. ‘우리’라고 생각되는 이유를 빈도순으로 나열하면, 동거역사성 - 사적친밀성 - 유사성 - 상호이해 - 아껴주고 도와줌 - 격의없음 - 신뢰의 순서이지만, ‘우리편’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아껴주고 도와줌 - 동거역사성 - 사적친밀성 - 유사성 - 신뢰 - 상호이해 - 격의없음의 순서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껴주고 도와줌’의 경우이다. ‘아껴주고 도와줌’은 ‘우리’에서는 다섯 번째로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우리편’에서는 첫 번째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즉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동거역사성)’, ‘친하게(사적 친밀성)’ 지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편’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잠재적 실의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을 도와주고 아껴주지 않더라도 함께 생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가 될 수 있지만, 아무리

표 3. '우리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응답내용	빈도(비율)
아껴주고 도와줌	67(19.7)
(힘들 때) 도와준다	26
아껴준다	16
나에게 호의적	8
기타	17
동거역사성(함께, 같이)	46(13.5)
항상 곁에 있다/같이 활동	19
자주 만나고 연락	7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5
기타	15
사적 친밀성	46(13.5)
친하니까	28
좋아하니까/사랑하니까	18
유사성	41(12.1)
비슷한 생각의 공유	28
마음이 통함	13
신뢰	33(9.7)
믿음이 가는 사람	20
비밀,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사람	13
상호 이해	28(8.2)
서로를 잘 안다	16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12
격의없음	17(5.0)
편하니까	17
기타	62(18.2)
가족이니까	16
함께 있으면 즐겁다	7
기타	39
총 계	340(100)

표 4. '남의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응답내용	빈도(비율)
아껴주고 도와주는 마음의 부족	67(25.7)
이기적	15
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함	11
나를 걱정하거나 아껴주지 않음	9
기타	32
동거역사성(함께, 같이) 부족	13(5.0)
대화가 없다	6
만남, 연락이 거의 없다	5
함께하는 활동이 없다	2
사적 친밀성 부족	63(24.1)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지 못함	32
싸운 적이 있다/적대적인 관계	15
서로 친하지 않다	10
나와 무관한 사람	6
유사성/공통점 부재	37(14.2)
서로의 생각/가치관이 다르다	18
마음이 통하지 않음	5
기타	14
신뢰 부족	12(4.6)
믿음 부재	12
상호 이해 부족	10(3.8)
서로를 잘 모름	10
거리감	16(6.1)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16
기타	43(16.5)
서로 다른 집단에 소속	7
기타	36
총 계	261(100)

함께 생활하고 친하게 지내더라도 '나'를 도와주고 아껴주지 않으면 '우리편'으로 인식되기가 어

려우며, 만약 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남의편'으로까지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마찬가지로 ‘남’과 ‘남의편’에 있어서도 ‘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서는 네 번째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던 ‘아껴주고 도와주는 마음의 부족’이 ‘남의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전체적으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 남이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동거역사성’과 ‘사적 친밀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우리편이나 남의편이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아껴주고 도와줌’과 ‘사적 친밀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우리’와 ‘남’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동거역사성’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반면, ‘우리편’과 ‘남의편’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아껴주고 도와줌’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2

연구 2는 한국문화에서 ‘우리’와 ‘우리편’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 ‘우리’ 또는 ‘우리편’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들(또는 형성되는 원인들)의 요인구조와 그 조건들의 성격(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2는 연구 1을 통해 수집된 ‘우리’ 또는 ‘우리편’이 된 조건(이유)들(질문 “왜 우리 또는 우리편이라고 생각되십니까?”에 대한 자유답변 내용들)을 실험참가자들에게 제시하고, 각 조건(이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또는 ‘우리편’이라고 생각되는 정도’를 물었다. 실험참가자들의 반응들은 ‘우리’와 ‘우리편’의 개념적 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와 ‘우리편’의 개념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1에서 얻어진 조건(이유)들이 ‘우리’ 또는 ‘우리편’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

인지 충분조건인가를 물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적 또는 심리적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 사건 또는 전제조건들이 완성되어야 하며 그 선행사건들의 기능이 다르다.²⁾ 특히 여러 사건들 또는 여러 개념들이 서로 구분될 때, 같은 선행사건 또는 전제조건들이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러한 차이들은 그 개념들의 질적인 차이를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대인지각의 과정에서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많은 개념들(착한, 좋은, 철이 든, 성숙한 등)은 그러한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특성들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각되는 조건들에서 거의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물론, 그 중요성의 순서나 요인구조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상의 구분은 바로 같은 조건(특성)내용이 각 개념들에서 다른 기능을 할 때 이러한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 2는 ‘우리’와 ‘우리편’이 형성되는 조건에 있어 구조적이고 성격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동안 개념적으로 불분명하게 분류, 번역, 사용되어져 왔던 ‘우리’, ‘우리편’, ‘내집단’에 대한 심리학적 분류를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2)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심장에 총알이 관통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충분한 조건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또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조건은 아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멈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선행사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순수한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은 존재하지 않지만 한 사건/조건이 상대적으로 필요조건 또는 충분조건에 가깝게 지각되는 차이가 개념의 심리적 구분에서 중요하다.

방 법

실험참가자

중앙대학교(124명), 고려대학교(45명), 세명대학교(197명)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총 366명의 2, 3학년 학부학생들이 수강과제의 일부 분으로 참가하였다. 전체 실험참가자 중 185명이 남자였고 172명이 여자였으며 9명은 성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사도구 및 절차

모든 실험참가자들은 두 페이지로 구성된 한 개의 설문지를 받았으며, 여러 단어들의 정확한 문화적 이해를 위해 본연구가 행하여지고 있다고 들었다. 설문지의 첫 페이지에는 어떤 단어(우리 또는 우리편; 한 실험참가자는 한 단어에 대한 설문지만 받는 실험참가자 간 요인설계에 대한 설문지인지를 밝히고, 질문의 정확한 의미와 답변 방법에 대한 지시문이 적혀 있었다. 제시되는 조건들(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을 묘사하는 특성들)이 “얼마나 그 사람 또는 집단을 ‘우리’라고 생각 되게 하는가”를 7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7점 척도에서 1점은 ‘전혀 우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로, 7점은 ‘완전히 우리라고 생각된다’로 제시되었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 각각의 의미와 예문, 구분 방법이 제시되었다. 실험참가자들에게 필요조건과 충분 조건의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주어졌다:

필요조건: 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 그러나 그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

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예) 군대(일반 사병으로)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이어야 한다. 하지만 남자라고 반드시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때, “남자인 것”은 “군대 가는 것”의 필요조건일 수 있다.

충분조건: 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한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조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흔히 우리들은 “같이 별거벗고 목욕을 하면, 친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같이 목욕한 후에는 사이가 친해집니다. 하지만, 친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목욕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같이 목욕하는 것”은 “친해지는 것”의 충분조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인 설명만으로는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조건을 효과적으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³⁾ 시간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주어진 조건들을 특정 형태의 문장에 적용시켜보도록 하는 문장완성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즉, 아래에 주어지는 두 문장의 빈 공간에 각 조건(특성)들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3) 본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에 실시된 예비연구에서는 많은 대학생들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분류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가족’과 같은 특정 소속집단에 대한 특성들은 그 하나만으로 충분히 ‘우리’ 또는 ‘우리편’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또는 ‘우리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가족’을 필요 조건으로 분류하였다.

표 5. 각 특성의 '우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아껴줌	신뢰성	유사성	동거성	가족성 친밀성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	.775				
의지할 수 있는 사람	.745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745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717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	.694				
서로를 위하고 챙겨주는 사람	.667				
마음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663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661				
나를 도와주는 사람	.637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	.623				
내가 잘못해도 이해해 주는 사람		.717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713			
믿음이 가는 사람		.676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사람		.664			
서로에 대해 잘 아는 사람		.622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831		
나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			.819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786		
나와 취미나 기호가 유사한 사람			.614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			.587		
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				.720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				.696	
나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				.651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사람				.637	
친구					.778
가족					.711
사랑하는 사람					.707
나와 친한 사람					.544

①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_____ 더 동의하면, 그 조건은 필요조건에 더 가깝고, 이어야(하여야) 한다” 반대로 ② 문장에 상대적으로 더 동의하면, 그

② “_____이면(하면) 반드시 우리가 된다” 조건은 충분조건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도록 지시 되었다.

그리고, 실험참가자들이 ① 문장에 상대적으로 설문지의 두 번째 페이지에는 연구 1에서 ‘왜

우리(또는 우리편)라고 생각되는가'에 대한 자유 기록 답변의 내용 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37개의 특성(조건 또는 원인)을 차례로 제시하고 첫 페이지에서 설명된 두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문항들은 요인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표 5에 열거되어 있다.

결 과

‘우리’ 또는 ‘우리편’이 되기 위한 조건(특성 또는 원인)들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설문 참가자들의 반응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조건들에 대한 필요/충분조건 질문자료에 대해 binominal test를 실시하여, ‘우리’ 또는 ‘우리편’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요인분석4)

37개의 특성에 대해 ‘우리’라고 생각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답한 자료와 ‘우리편’이라고 생각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답한 자료를 각각 Principal Component method와 Varimax Rotation method를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수에 대한 제한 없이 행하여진 ‘우리’자료에 대한 분석은 고유가(eigen value)가 1보다 큰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지만, 마지막 3개의(5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요인들의 고유가는 거의 1에 근접하였으며, scree test를 통해 변량설명에 큰 도움이 없는

4) 5개의 특성은 요인분석 결과 어느 한 요인에도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서 요인분석 표에서 제외되었다. 그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나에 대해 많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것이 발견되어 제외되었다. 5개 요인으로 지정된 새로운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5개의 요인은 아껴줌(상대방의 나에 대한 아껴주고 도와주는 마음), 신뢰성(상호적인 믿음), 유사성(공유된 특성들), 동거성(시간적·공간적 근접성), 가족성 친밀성(사적 친밀감)의 순으로 요인이 추출되었다. 모든 요인의 전체 설명량은 62.71%이었다.

‘우리편’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은 처음에는 고유가(eigen value)가 1보다 큰 8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지만, 마지막 3개의(6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요인들의 고유가는 거의 1에 근접하였으며, scree test를 통해 설명변량에 큰 도움이 없는 것이 발견되어 제외되었다. 5개 요인으로 지정된 새로운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5개의 요인은 의리성(아껴줌+신뢰성), 동거성, 유사성, 가족성 친밀성, 소속성(같은 집단의 소속 여부)의 순으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우리’자료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는 ‘아껴줌’과 ‘신뢰성’의 두 요인으로 분류되었던 특성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아울러 같은 집단에 소속되었는가에 대한 여부(소속성)가 독립적인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전체 요인의 설명량은 62.76%이었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37개 특성에 대한 필요/충분조건 자료는 비연속 범주 자료이므로, 각 특성에 대해 binominal test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중 하나로 인식된) 특성들만 표 7에 제시하였다.

필요조건보다 상대적으로 충분조건이 많이 발견되었다. 가족성 친밀성은 ‘우리’와 ‘우리편’이 형성되는데 공통적으로 충분조건이었다. 즉, 가족,

표 6. 각 특성의 '우리편'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의리성	동거성	유사성	가족성 친밀성	소속성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	.739				
나를 도와주는 사람	.722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722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700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	.694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	.679				
의지할 수 있는 사람	.675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사람	.667				
믿음이 가는 사람	.658				
마음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625				
나를 믿어주는 사람	.546				
내가 잘못해도 이해해 주는 사람	.530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		.857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사람		.652			
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		.648			
나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		.611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791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736		
나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			.681		
나를 좋아하는 사람			.539		
친구				.761	
사랑하는 사람				.756	
나와 친한 사람				.667	
가족				.582	
같은 집단에 소속된 사람					.705

친구,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 또는 '우리편'으로 받아들여진다. 흥미로운 결과는 '우리'가 되는 충분조건에는 동거성 요인('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 '나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 '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편'이 되는 충분조건에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과 같

이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함께 많은 시간과 삶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은 그것만으로 '우리'가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편'이 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반면, 나에게 대해 아껴주는 마음과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것만으로 '우리편'이 되지만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밖에,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되기 위

표 7. 특성들의 필요/충분 조건

	우 리	우 리 편
충분조건	가족	가족
	친구	친구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같은 집단에 속하는 사람	같은 집단에 소속된 사람
	나와 함께 생활하는(사는)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
	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필요조건	믿음이 가는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한 충분조건으로 여겨졌으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편’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 여겨졌다.

‘우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하는 필요조건은 ‘믿음이 가는 사람’과 ‘나를 믿어주는 사람’으로, 상호적인 신뢰성이 없이는 ‘우리’가 될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그렇지만, 흥미롭게도, ‘우리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가는 사람’은 필요조건이지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제외되어, 상호적인 신뢰성이 아닌 상대 타인이 나를 믿는지 여부는 관계없이 본인이 그 상대를 믿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우리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논의

‘우리’와 ‘우리편’에 대한 사회적 표상, 요인분석, 필요/충분조건에 대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내집단의 일부본인 ‘우리’와 ‘우리편’이 질적으로 다른 집단임을 시사한다. ‘우리’의 형성 원인에

대한 연상연구(연구 1)와 그러한 원인들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연구(연구 2)에서 공통적으로 동거성(함께 많은 시간과 활동을 공유하고 접촉한다)이 ‘우리’의 형성에 중요하다고 발견되었다.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류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반응들이 동거성에 관한 표현이었고, 동거성만 있으면 ‘우리’가 형성되는데 충분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반면에, ‘우리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에서는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는 측면(즉, 잠재적 실익성이 있느냐 여부)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또한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는 잠재적 실익성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편’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요인분석 결과는 ‘우리’와 ‘우리편’이 다른 구성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아껴줌, 신뢰성, 유사성, 동거성, 가족성 친밀성의 5개의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우리편’은 ‘우리’에 있어서 제 1요인과 제 2요인인 아껴줌과 신뢰성이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었으며, 새로이 소속성이라는 요인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우리편’은 의리성(아껴줌+신뢰성), 동거성, 유사성, 가족성 친밀성, 소속성의 5개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끼고 도와주는 것’과 ‘신뢰’가 ‘우리’의 형성에서는 서로 독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우리편’의 형성에서는 ‘아끼고 도와주는 것’과 ‘신뢰’가 하나의 개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충분조건에서도 ‘우리’와 ‘우리편’은 차이를 보인다. 충분조건에서, 함께 많은 시간과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동거성)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될 수 있지만 ‘우리편’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반면, 나에게 대해 아껴주는 마음과 도움을 주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우리편’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필요조건에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주고 내가 믿는 상호적인 신뢰성이 반드시 필요하였지만, ‘우리편’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믿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가 상대방을 믿는 것만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는 ‘우리편’과 달리 ‘우리’는 관계에서 상호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우리’와 ‘우리편’의 차이는 사회심리학에서 내집단/외집단 분류 이상의 사회적 범주화 과정에서 질적 분류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사회적 범주화(social categorization) 연구의 새로운 틀을 제안한다. 기존의 사회적 분류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적 접촉 대상을 단지 내집단/외집단으로 이분화하는 전제 하에, 사회적 분류의 영향에 관여되는 양적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예를 들어, 내집단 편애(또는 편파)와 외집단 차별을 줄이는 요인들로 개성화와 몰개성화의 개념을 제안했으며(Worchel & Andreoli, 1978), 집단간 경계의 강함/약함의 영향을 조사하였고(Wilder & Shapiro, 1984), 내집단의 응집성의 차이를 연구하였다(장성수, 1988; Wilder & Thompson, 1980). 그

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분류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요인들로 실제 내집단 또는 외집단 자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단지 ‘본인이 속한 집단’으로서의 내집단은 그 종류나 개인적인 경험에 상관없이 같은 속성을 전제로 하여왔고, 이러한 전제는 본 연구의 결과들과 같은 내집단 내의 또는 외집단 내의 질적으로 상이한 집단의 존재를 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전반적인 사회적 분류 연구의 틀의 확대필요성과 동시에 각 문화에서 사회관계를 규정하는 독특한 방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우리’에 대한 한국문화에서의 ‘우리성(wenness)’이 서양의 내집단 편향(in-group favoritism)의 단순한 확대나 극단화로 이해될 수는 없는 고유한 속성을 내포한 개념이라는 토착문화심리학적 제안(최상진, 2000)을 지지한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기존의 ‘정’ 또는 ‘우리성’ 등의 한국 고유의 개념들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들과 일관된다. 최상진(1993)은 일본과의 비교연구에서 ‘우리’가 형성되는 조건으로 동거성의 중요성을 보고하였으며, 또한 가장 한국적인 개념 중의 하나인 ‘정’드는 조건의 내용특성범주가 ‘우리’의 요인구조와 비슷한 동거역사성, 유사성, 도와줌 등으로 분류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공통점은 문화적 고유성이 여러 심리적 개념에 용해되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러한 문화적 고유성에 대한 이해가 그 문화에서의 정확한 심리와 행동의 이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서구문화에서 내집단/외집단으로의 사회적 분류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한국에서는 우리/남, 우리편/남의편, 우리/우리편을 포함하는 사회적 분류가 내집단/외집단 분류와 함께 또는 그것을 초월하여 한국사람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된다.

더 나아가, 그러한 심리적인 기제의 적용이 한국인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더 큰 설명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인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이중적인 평가에 대한 설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들 혹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쓴 글들을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글에 의하면, 같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관계에서 완전히 상이한 경험을 하고 한국인들에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을 정말 친절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하면, 다른 한 부류는 한국 사람들을 낯선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불친절하고, 심지어 적대적인 사람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고교 동창, 대학 동창, 직장 동료, 가족, 친척 등의 본인이 속한 수많은 집단들에서 각기 다른 모습과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러한 이중성 또는 다양성은 집단 소속에 따른 단순한 내집단/외집단의 분류보다 ‘우리를 대하는 마음들’, ‘남을 대하는 마음들’ 또는 ‘우리편을 대하는 마음들’이라는 좀 더 정교한 심리적 기제를 적용함으로써 더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한국인의 그러한 심리적인 정교한 심리적 기제의 연구가 요망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첫째, 한국인, 특히 대학생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함으로써 내집단 내의 ‘우리’와 ‘우리편’의 개념적 차이가 범문화적 보편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차후 다양한 계층, 직업의 사람들과 특히 서구 문화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 문화적 연구의 필요성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강조된다. 서구문화에 비해 우리문화를 포함한 동양문화에서 ‘우리’와 ‘우리편’의 차이는 더 강

하게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한 차이의 범문화적 보편성을 발견하는 것도 서구심리학에서 생각지 못한 한국적 토착심리학적 개념의 국제적 규명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둘째, 연구 2에서 각 특성들이 필요조건인지 충분조건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참가자들이 각 특성을 필요/충분 조건 중에 한 가지를 강제 선택하게 하였는데, 이는 지각되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정도가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실험참가자가 모호한 답변을 하는 것을 막고 상대적 차이의 극대화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 필요조건이면서 동시에 충분조건이 되는 조건(또는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불가능하였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 박수현, 최상진 (1990). ‘우리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 발표논문집, 69-78.
- 장성수 (1984). 분배정의와 절차정의가 보상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 사회심리학연구, 2(1), 192-218.
- 장성수 (1988). 집단응집성이 분배원칙 선호에 미치는 영향. 사회심리학연구, 4(1), 403-438.
- 차재호, 박재현 (1991). “우리”라는 표현사용의 집합주의적 관점에서의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351-357.
- 최봉영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1): 일반 이론의 구성. 서울: 느티나무.
- 최상진 (1993).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리’의식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29-244.
- 최상진 (1997a). 당사자 심리학과 제3자 심리학.

- 인간관계 조망의 두 가지 틀.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131-143.
- 최상진 (1997b).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pp. 695-766). 서울: 학문사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Billig, M., & Tajfel, H. (1973). Social categorization and similarity in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27-52.
- Brown, R., Tajfel, H., & Turner, J. C. (1980). Minimal group situations and intergroup discrimination: Comments on the paper by Aschenbrenner and Schaefe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4), 339-414.
- Choi, S. C., & Choi, S-H. (1990). We-ness: The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Cousins, S. D. (1989). Culture and self-perception in Japan and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24-131.
- Hofstede, S.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ward, J. W., & Rothbart, M. (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memory for ingroup and outgroup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301-310.
- Leung, K., & Bond, M. H. (1984). The impact of cultural collectivism on reward allo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793-804.
- Locksley, A., Ortiz, V., & Hepburn, C. (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discriminatory behavior: Extinguishing the minimal intergroup discrimina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517-783.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Park, B., & Judd, C. M. (1990). Measures and models of perceived group var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73-191.
- Tajfel, H. (1970).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223(5), 96-102.
- Tajfel, H. (1978). Interindividual behavior and intergroup behavior. In H.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pp. 27-60). New York: Academic Press.
- Tajfel, H., Billig, M. G., Bundy, R. P., & Flament, C. (1971).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149-178.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hip* (pp. 7-24). Chicago-Nelson Hall.
- Triandis, H. C. (1988).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A reconceptualization of a basic concept in cross-cultural psychology. In G. K. Verma & C. Bargley (Eds.), *Personality, attitudes, and cognitions* (pp. 60-95). London: Macmillan.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Berman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p. 41-133).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urner, J. C. (1983). Some comments on "Measurement of social orientations in the minimal group

- paradig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4), 351-367.
- Wilder, D. A. (1984). Predictions of belief homogeneity and similarity following social categoriz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4), 323-333.
- Wilder, D. A. (1986). Social categorization: Implications for creation and reduction of intergroup bia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291-355.
- Wilder, D. A., & Shapiro, P. (1984). The role of outgroup salience in determining social ident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342-348.
- Wilder, D. A., & Thompson, J. E. (1980). Intergroup contact with independent manipulation of ingroup and outgroup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589-603.
- Worchel, S., & Andreoli, V. A. (1978). Facilitation of social interaction through deindividuation of the targ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549-556.
- 1 차원고접수: 2002. 3. 2
수정원고접수: 2002. 6. 10
최종게재결정: 2002. 6. 10



Psychological Sub-categorization of 'In-group': Weness versus In-the-same-group

Cheong-Yeul Park

Taekyun Hur

Sang Chin Choi

Chungang Universit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conceptual structures of 'we (a group of people that a person think he feel weness with)', 'the others(the opposite concept of we)', 'the-same-team', and 'the-other-team' by examining the conditions required for establishment of those concepts in interpersonal situations. Furthermore, we suggested social categorizations of qualitatively-divergent subgroups beyond ingroup/outgroup categorization. The concept of 'we' was found to be composed with 5 factors: Sharing time and activities, credibility, similarity, potential benefit, and intimacy. However, to the concept of 'the-same-team', all items related with credibility and potential beneficial factors were integrated into one factor. In addition, the factor of sharing time and activities was listed as the most frequent reason for which they thought certain people were included in their own 'we'. Also, it was perceived as a sufficient condition (the condition itself can make an event happen). However, the factor of potential benefit was the most frequent reason for which they thought certain people were included in their own 'the same team'.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extension of theory of social categorization and uniqueness of the concept 'weness'.

Keywords : social categorization, ingroup/outgroup, weness, necessary condition/sufficient condition.